

-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 동상 옆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 -

의 건 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킨 항일독립투사 **박희광** 선생의 동상 바로 옆에 일본산 향나무가 있는 것은, 동상의 조경수로 부적합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을 원하는 청원의 건으로,

청원인들은, 항일독립투사의 동상 옆에 일본산 향나무가 있다는 것은 항일독립투사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의미로서, 예전에는 정원수로 향나무가 적합하여 많이 식재하였으나 지금은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소나무나 느티나무가 잘 어울린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동상은 1984년도에 본 자리에 건립되었으며, 향나무는 70~80년 수령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존재시차의 문제는 드러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성은 있어 보임.

자연공원인 금오산도립공원 내 본 향나무 등 각종 수목, 조형물 및 공원시설 등은 자연공원 관리주체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구미시에 이송하여 건의할 것을 의결한다.

다 음

- 자연공원인 금오산도립공원 내 각종 수목, 조형물 및 공원시설 등은 자연공원 관리주체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본 향나무 등 공원구역 내 조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 금오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으로서, 전국에서 관광객과 방문객이 즐겨찾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하기 바람.

2013. 12. .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